



브라질월드컵에 출전하는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전지훈련 사흘째인 3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세인트 토머스 대학교 축구장에서 체력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 철벽수비, 측면 돌파로 깬다

태극전사들 러시아전 '맞춤 전술' 구슬땀

홍 감독, 역습 능한 상대 허찌르는 한방 주문

19명 2개조로 나눠 세트피스 등 집중 훈련

브라질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8강 진출에 도전하는 홍명보호가 목표 달성의 디딤돌이 될 러시아 격파를 위한 '맞춤 전술' 완성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세인트 토머스 대학교 축구장. 전날 하루 두 차례 강도 높은 훈련을 치른 터라

선수들의 표정에는 피곤함이 잔뜩 묻어났지만 월드컵 개막이 열흘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마이애미 전지훈련 사흘째를 맞은 태극전사들은 공격 패턴 훈련과 세트피스 방어 훈련을 병행하며 2시간 동안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훈련에 앞서 대표팀은 숙소에서 러시아 평가전을 비디오로 보면서 러시아의 허점 찾기에 집중했다. 비디오를 통해 드러난 러시아 전력의 특징은 역습에 강하고 조직력이 강하다는 것. 이 때문에 홍 감독은 러시아의 강점을 피해 나가면서 최적의 공격을 펼칠 수 있는 '공격 패턴' 훈련을 반복해서 진행했다. 특히 이날 훈련에서는 사실상 대표팀의 베스트 11로 꼽히는 선수들이 주전조를 맡았다. 박주영(아스날)이 원톱 스트라이커로 나선 가운데 구자철

(마인츠)이 새도 스트라이커를 맡았다. 또 손흥민(레버쿠젠)-이정용(볼턴)이 좌우 날개로 나섰다 중앙 미드필더에는 기성용(스완지시티)-한국영(가시와 레이솔), 포백에는 윤석영(퀸스파크 레인저스)-김영권(광저우 헝다)-곽태휘(알 힐랄)-이웅(울산)이 배치됐다. 비주전조에는 김신욱(울산)과 이근호(상주)가 전방 공격수로 나섰다, 지동원(도르트문트)-김보경(카디프시티) 조합이 좌우 날개를 맡았다. 박중우(광저우 부리)와 하대성(베이징 궈안)이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되고, 박주호(마인츠)와 김정수(가시와 레이솔)는 좌우 풀백으로 배치됐다. 김영권과 곽태휘는 주전조와 비주전조에서 모두 뛰었다. 공격 패턴은 러시아의 역습 방지에 역점을 뒀다. 이 때문에 무리하게 중앙 돌파를 시도하다 볼을 뺏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좌우 풀백의 오버래핑을 활용한 빠른 측면 돌파에 집중했다. 특히 볼을 받는 선수들은 최대한 볼 터치 횟수를 줄여 공격 속도를 끌어올리고, 수비라인에서 3~4차례 터치만으로 슈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공을 들었다. 공격 훈련을 끝낸 대표팀은 훈련 막바지에 상대 코너킥 상황을 막아내는 시뮬레이션 훈련에 나섰다. 수비 훈련 역시 철저히 '러시아 맞춤형'으로 이뤄졌다. 홍명보 감독과 김태형 코치는 페널티지역에서 선수들의 위치를 일일이 지정해주는 한편 러시아의 장신 선수와 2선에서 침투하는 공격수를 막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설명했다. 손흥민은 훈련이 끝난 뒤 "전체적으로 부족한 공격루트를 늘리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며 "러시아가 역습과 조직력에서 뛰어난 만큼 공격진에서 많은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담담한 '손'

"월드컵도 똑같은 경기... 많이 뛰며 내 몫 하겠다"

"첫 월드컵 무대이지만 그동안 치러온 경기들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브라질월드컵에서 홍명보호의 주요 득점 자원으로 손꼽히는 '손세이셔널' 손흥민(레버쿠젠)이 평상심을 강조하고 나섰다. 손흥민은 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세인트 토머스 대학교 축구장에서 치러진 훈련을 끝낸 뒤 "첫 번째 월드컵이지만 모두 똑같은 경기일 뿐"이라며 "앞으로 개막까지 열흘이 남았는데 조별리그 매 경기에 집중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2013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12골을 터트린 손흥민은 지난 시즌 정규 리그에서 10골을 작성, 두 시즌 연속 시즌 10골 고지를 밟으면서 절정의 골 감각을 과시했다. 이 때문에 손흥민은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사상 첫 원정 8강 진출을 이끌 핵심 자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손흥민은 지난 2일 AP통신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주목할 한국 선수 베스트5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국제적으로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손흥민은 겸손함으로 주변의 칭찬을 받아냈다. 그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월드컵

개막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준비를 더 든든히 해야 한다"며 "큰 욕심을 버리고 남은 훈련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명보호가 조별리그 1차전 상대인 러시아 격파에 '올인'하는 상황에 대해선 "공격진에서 많은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러시아가 역습이 좋고 조직력이 뛰어난 만큼 위험 지역에서 모험적인 패스는 절대 삼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또 "러시아는 역습에 강한 만큼 중앙 돌파보다는 측면 공격에 중점을 뒀다"며 "내가 해야 할 몫을 확실하게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최고 몸값 '메시'

시장가치 1812억원... 호날두 1509억원 2위



'별들의 전쟁'이 펼쳐질 2014 브라질월드컵 축구대회에서 몸값이 가장 비싼 선수는 누구일까?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가 단연 첫 손으로 꼽힌다. 3일 독일의 축구 이적료 평가 사이트인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메시의 시장가치는 1억560만 파운드(약 1812억원)에 달해 세계 축구 선수 중 가장 높다. 메시는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의 유스팀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 계속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어서 이적료 등의 수치가 없다. 트랜스퍼마크트의 시장가치 기준 2위 선수는 메시의 영원한 맞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로, 880만 파운드(약 1509억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가레스 베일(웨일스)이 7040만 파운드(약 1207억원)로 뒤를 이었지만 그는 허약한 자국 대표팀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 나서지 못했다. 브라질의 신성 네이마르는 5280만 파운드(약 905억원)의 시장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22살의 신예로 이번이 첫 월드컵인 네이마르가 대회 종료 후 자신의 가치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선수 시장가치의 총합으로 봤을 때는 개최국 브라질이 '가장 비싼 팀' 타이틀

을 차지했다. 축구 전문 매체 더스코어닷컴이 연봉·기록·나이·최근 성적 등을 고려해 산출한 자료를 보면 브라질은 총 7억1829만 9900 달러(약 7358억원)의 시장가치를 지닌 팀으로 평가됐다. 한국과 같은 H조에 속한 벨기에에는 4억 6785만6476 달러(약 4793억원)로 7위에 올라 '다크호스'의 면모를 보였다. 러시아는 2억6196만8904 달러(2683억원)로 11위, 알제리는 1억493만2697 달러(약 1075억원)로 25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8332만9629 달러(약 853억원)로 27위에 자리했다. /연합뉴스